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7 호
2016년 3월 1일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kpcanypts.org>

학장 유재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6년 가을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6년 가을학기 전형일 : 2016년 8월 25일

본 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38년간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 등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PCUSA 교단에서도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군목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본교와 Blanton-Peale Institute와 상호교육협정을 체결함으로 I-20Form을 발행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집학과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신학석사 (Th.M.)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이력서, 서약서 각 1통씩,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kpcanypts.org)에서 다운로드
입학전형일시	2016년 8월 25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형과목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개강일	2016년 9월 5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강의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50분)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 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http://www.kpcanypts.org
상담문의	학 감 : 이기백 교수 732-266-9013 총무처장 : 임선순 교수 917-754-5220, 718-921-3277

“성령과 핸드폰” (사도행전 2:17)



학장 유재도 박사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화 가운데서 나는 핸드폰을 실제적인 예로 들고 싶습니다. 오늘날 핸드폰은 참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언제든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 수 있고, 온갖 정보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첩처럼 메모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설교와 성경주석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신문들을 보고, 그것으로 날씨도 확인하고, 그것으로 카톡도 하고, 그것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채팅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길이든지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많은 기능들이 작은 핸드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핸드폰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나는 매일 주머니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전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하실의 서재에 들어가서 온갖 책들과 주석을 꺼내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웬만한 것은 핸드폰으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 강의도, 설교 동영상도, 설교예화도, 성경 사전도, 성경 주석도, 각종 번역의 성경과 찬송가도, 책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좋아졌다! 참으로 시대가 바꾸었구나! 이제는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손가락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핸드폰은 유익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매우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안에는 수많은 악하고 추하고 어두운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잘못 누르면 무서운 유혹의 길과 타락하는 길과 죄악 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인 것입니다.

핸드폰과 관련하여 성령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올 해에는 성령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올 해의 표어를 “성령의 광선을 비추어 주소서!”로 정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장로회신학대학에서는 “기독교 교육과 성령”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신학대학교에 대하여서나 저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 갈수록 나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더욱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에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성경책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잠시 생

각해보면 성령은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운데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런 은사들을 매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입니다. 마치 가을철 사과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과수원에 한 나무마다 수백 개의 맛있고 탐스러운 사과가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인간 발달을 여러 가지의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이 말씀처럼 간단하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각 단계에서 성령과 그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나이에 있든지 상관 없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쓸모없는 나이,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나는 믿는 자들과 신학대학과 교회가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다음의 몇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시대의 핸드폰이나 유사한 여러 가지의 과학의 도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로 다음과 같이 전달되고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소 즉 건물, 도시, 지역, 나라를 뛰어 넘어서 들어갑니다.
2. 언어를 뛰어넘어서 들어갑니다. 언어들이 자동적으로 통역이 됩니다.
3. 문화를 뛰어 넘어서 들어갑니다.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습니다.
4.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 교수, 선교사, 교사를 뛰어 넘어서 들어갑니다.
5. 온갖 어려운 상황을 뛰어 넘어서 들어갑니다.
6. 인종을 뛰어 넘어서 들어갑니다. 신속하게 인종들이 오고 갑니다.
7. 전통을 뛰어 넘어서 들어갑니다. 각종 전통이 노출되고 공유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딪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신학적 방향”



이사장 박맹준 목사
(뉴욕신일교회 담임)

필자는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19년째 섬기고 있는 목회자이다. 부족한 사람을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해 주심으로 평소에 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인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이하 뉴욕장신)가 나아가야 할 신학적 방향이라는 주제를 한 번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먼저 주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 이민자들이다. 해외에 나와 사는 이민자로 현장에서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본국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과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미주 땅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며 신학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민자들과 함께 살면서 섬기는 특수 목회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모든 정황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채 소명을 받았다고 신학공부를 하거나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총회나 이사회에서 임명을 받았다고 신학대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방향을 잃거나 자초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민 교회의 목회와 신학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목회방법으로, 신학교육으로는 더 이상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짧은 글을 통해서 뉴욕장신이 나아가야 할 신학적 방향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방법론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신학적인 기초가 없는 목회를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보니 이민교회 목회 수준이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는 신학이 있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신학적 훈련이 신학교 다닐 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 지식을 쌓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신학교에서 목회를 준비하는 경우인데,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만 결국 목회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회현장에 뛰어든다 보면 목회에 대해서 훈련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실제 목회현장에 들어가서는 신학적인 것에 치우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본다. 앞서 이야기한 ‘목회는 신학이 있는 목회’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목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를 포함하여 실제 목회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목회 스타일을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치우친 목회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목사는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며 설교에만 초점을 맞춘다. 또 어떤 분은 치유와 기도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목회현장에서는 설교, 제자훈련, 기도, 치유 다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작 균형 잡힌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막상 목회현장에 들어가면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한 쪽으로 치우친 목회

로 일관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즉 목회의 현장성과 신학의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이 불균형을 바로 잡지 못하여 궤도를 이탈하는 목회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 점점 거세지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저마다 한계에 부딪쳐서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지 모른 채 헤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고 연일 들려오는 모국교회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목회자들의 참람한 소식은 우리 목회자들의 그나마 입지조차 더욱 좁혀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위기를 맞아서 신학교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신학이 이론 안에 갇혀서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이론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답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신학교육이 목회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어느 우수한 대학교 신학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신약학 교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학교로 걸려온 전화를 학교직원이 받아서 신약학 교수에게 돌려 준 것이다. 그 내용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 같으니 속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학교 직원은 신약 성경의 권위자인 그 교수가 책임자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신약학 교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느 목회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겁이 덜컥 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교수는 세계적인 신학자로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 교수의 수업 시간에 직접 들은 모 교수의 말이다.

성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라는 직위를 갖고 있어도 성경을 우리 삶에 재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해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해도 성경의 세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은 단지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신학이 성경말씀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이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목회는 이러한 신학을 목회에 적용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교회역사상이 돌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리 녹록치 않은 곳이다. 서두에서 이미 밝힌 대로 우리는 다 이민자이다. 교회도 작고 신학교도 작다.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한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럴 때 뉴욕장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른 신학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다. 이민목회가 참다운 목회가 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아픔을 가져야 한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숫자는 작았으나 소리는 컸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지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늘처럼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많고 성직자가 많고 평신도가 많은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러나 동시에 오늘처럼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때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이민 왔을 때(1984년)만 해도 모든 이민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한다. 불신자들도 쉽게 교회가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더 이상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녹록치 않은 이민생활 여건 등으로 역이민현상도 일어난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분명히 목회가 어렵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미국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뉴욕장신대에서 훌륭한 신학교수들로부터 배운 경건과 학문이 내 목회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감히 확신하는 바이다.

끝으로 뉴욕장신대가 목회현장에 애쓰는 목회자들에게 바른 목회와 바른 신학에 방향을 제시하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즉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가 있는 신학을 위해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를 바라면서 학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의 건투를 빈다.♠

“21세기 선교전략 Paradigm의 변환: 어린이 교육 선교”



홍재광 학우

신학대학원3학년(M.Div.)
고려대학교 의과대학(Ph.D.)

어린이 교육 선교 전략은 21세기 세계선교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별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속 되어 온 “땅 끝 개념”, 즉 Geographic Window(지질학적인 선교 현장)의 개념으로부터 인간 연령의 개념, 특히 1세에서 18세 연령층에 포함된 세대를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선교 개념의 변화를 이루어 냈으므로 오랜 기간 소외 되어 왔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어린이 교육 선교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선교 대상을 어린이로 삼은 점이다. 전통적으로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지역 즉 10/40 Window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선교 전략(Geographical Mission Strategy)으로부터, 출생부터18세 미만의 연령대인 영유아 및 청소년들을 선교의 주 대상으로 바꾼 것은 이전에 시도 된 적이 없는 연령적 선교 전략(Chronological Mission Strategy)으로의 전환(Paradigm Shift)을 요구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도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양상을 지닌 교육 선교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선교 현장에서 전도와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선교 전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던지, 세계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지 막론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선교의 대상이며 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인정 하여 어떠한 분야에서는 함께 사역을 하는 데 특징이 있다.

셋째, 21세기 삶의 환경에 부합하는 선교 전략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 세기는 특징적으로 지구촌의 개념 즉 통신과 운송 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 SNS의 발달로 지구의 한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되고 소통되는 시대인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의 단절, 문화의 비연속성,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이 단절되는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이 바로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임을 통찰하여야 한다.

본 소고를 통해서 21세기형 선교 전략을 어린이 교육 선교에 두고, 현재 전 세계 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4/14 Window 운동의 정신과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Here and Now)도래 하는 것을 바라보며 추구해 나가려고 한다.

성경적 배경과 도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신명기 6:4-9) 신명기 6:4절의 말씀은 우리가 ‘쉐마’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출애굽 한 후, 광야에서의 40년 유랑기를 거쳐,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쉐마’의 특징은 이 말씀이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명 해 주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신명기 6:3)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 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햇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 1:1-4)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셨다고 과거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영토이다. 동으로는 유프라테강 즉 바벨론 땅(훗날 바벨론의 영토)까지, 북으로는 레바논과 햇 족속 즉 터키남부(훗날 앗수르의 영토)까지, 서로는 대해(지중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 한 땅)까지, 남으로는 시내 광야까지 주셨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백성들은 이 모든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도 이 땅들을 정복해서 물리적으로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의해 항상 괴롭힘을 당하였고, 북으로는 앗수르에 의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갔으며, 동으로는 바빌론에 의해서 남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 하신 그 땅을 가서 정복할 것은 꿈도꾸지 않았던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으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정복하지 못하였을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여호수아 24:31)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는 여호와 섬기기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사사기 때 나타났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도 알지 못 하였더라.”(사사기 2:10)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 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21:25)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이 전혀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있어 영적인 무지 상태가 (간혹 영적으로 깨인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 등이 통치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일 들이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훗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도 참혹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등 지도자들의 각성과 그들의 인도와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가는 말

21세기의 선교는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 세대에 속한 이들은 어른들에게는 문화적 이방인이다. 이들은 새로운 개념의 선교지(Mission Field)이다. 가정에서 지역 교회에서 그리고 지리적 선교지에서 어린이들은 이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 주된 사역의 대상 아니 선교의 동역자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한다.

21세기 교회는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 저희들을 즐겁게 할 달콤한 초코렛 캔디를 쥐어 줄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다시 한 번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 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2:17-21) 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4/14 Movement의 정신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오보양 학우

아비장 분교 1학년(M.Div.)

30년 전,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사랑 또 생명의 하나님이셨다. 열심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강한 Pressure는 오히려 더욱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오직 대학 입시만이 내 앞에 놓인 과제였고 나는 그 목적만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입시 준비로 인해, 부족한 영양과 수면 탓에 감기를 심하게 앓게 되었고 병원을 찾았을 때, 결핵으로 인한 폐기종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다. 살구만한 종양이 폐 깊숙이 박혀 있었고, 수술 내지는 장시간 약물 치료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다. 갈수록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추어진 초라한 20대 바로 나였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내게 본인을 들어내셨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나의 아프고 고장 난 부위를 그분의 방법대로 치료하고 계셨다. 당시 내과 과장은 이 상황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X-ray상에 불과 며칠 전까지 있었던 종양은 오고 간데 없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담당자들의 믿을 수 없다는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지금까지 그 때 없어졌던 종양은 다시 나를 찾지 않았다. 지쳐있었던 나는 영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언니의 약속을 믿고 아프리카 행 비행기를 탄 것이 아프리카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아프리카 땅으로 인도하셨다.

아프리카는 내게 있어 성지였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선교의 사명을 받은 구별된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훈련시키시며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사랑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소중한 딸과 아들을 선물로 안겨 주셨다. 그러나 행복했던 인생의 여정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다. 끝없는 내전 속에 소중한 재산을 잃기도 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넘겨야 했다. 사랑과 헌신으로 건축되었던 교회는 군인들의 캠프로 쓰였고 성도들은 빨빨이 흩어졌으며, 내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 전체는 쑥대밭이 되었다. 믿음이 없던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었다. 도저히 그분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불같은 시험이었다. 그렇게 호되게 훈련 받은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코트디부아르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때 나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척이나 혹독하셨다. 전쟁도 불사하셨고, 인간 고통, 배고픔, 배신, 등등 모든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와 병행된 사랑은 늘 불변하셨으며, 우리에게서 단 한 순간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백성철 목사님 내외분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끝없는 선교의 행진이 펼쳐져 갔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내 인생에 정직하게 답하셨으며 잠시라도 흐트러진 나를 불러 치면, 영락없이 공의와 정의를 앞세워 회초리를 드셨다.

또 내전이다!!!! 2011년 대통령 선거 후유증으로 전쟁이 있었고, 전쟁까지도 잘 이겨낸 성도들은 경제난이라는 또 다른 입장의 전쟁을 겪으며 아쉬운 가운데 교회를 떠나 다른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가장 큰 선교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성도들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무한하시며 기적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고, 용기였으며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셨다.

신앙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평탄한 가운데 나는 나태해져 간다. 이 때 즈음이면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맞으면 아프고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 앞에 나는 감사로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께서 지치시지 않도록 정신 차려 깨어있기를 내 자신에게 다짐해 본다.♠

뉴욕장신대 소식

1. 뉴욕장신대 제2회 학술세미나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은 2015년 8월 9일(주일)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서울장신대 예배학 김세광 교수를 초청해 제2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김세광 교수는 '문화 변혁에 따른 예배 변화와 갱신에 관한 신학적 연구'의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 기독교 예배 변화의 동향을 '예배 융합과 예배 전쟁'으로 요약했다.

예전적 예배와 현대문화적 예배에서 성만찬 회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회중의 화답으로 일사불란한 제창식 아멘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여성교회, 십대교회, 장애인 교회, 체육인교회, 연예인교회 세대별 및 전문화 예배가 등장했다. 이러한 교회는 전문분야의 달란트를 사용한 선교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교 지향적 예배라는 공통점이 있다. 카페 문화를 반영한 카페 교회, 클럽이나 소극장에서 예배하는 교회, 드라마 예배를 주축으로 하는 교회, 전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 자연에서 영성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교회, 한국전통문화로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등 이머징 예배 및 세대 통합 예배를 소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김인옥(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기독교교육)교수의 '통전적 영성 추구를 위한 신학적 미학'의 강의를 계속했다.



2. 뉴욕장신대 졸업예배 및 32회 학위수여식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32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지난 2015년 6월 7일(주일) 오후 6시 뉴저지 하베스트교회에서 열렸다.

2015년도 졸업자 명단과 수상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신학사 송천식 ▶ 교역학 석사 김민, 신경호, 정선희
- ▶ 최우수 성적상 정선희 ▶ 최우수 논문상 신경호 ▶ 공로상 김민, 정선희

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오늘 학위를 받는 졸업생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좋은 목회자란 큰 교회에 속한 사람, 많은 수의 성도를 보유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과 함께 하는 목회자를 뜻한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학장 유재도 박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핑계 밖에 될 수 없다. 졸업생들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던지 거룩한 사명을 받들어 끝까지 달려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졸업예배는 학감 이기백 박사의 인도, 동문회장 신상필 목사의 기도, 전 뉴저지노회장 정철 목사의 행 11:19-24 성경봉독, 뉴저지장로성가단의 찬양, 김종훈 목사의 설교, 학감의 학사보고, 학장 유재도 박사 와 이사장 박맹준 목사의 학위수여식, 재학생과 동문이 졸업생에게 선물 증정, 학장의 권면, 총무처장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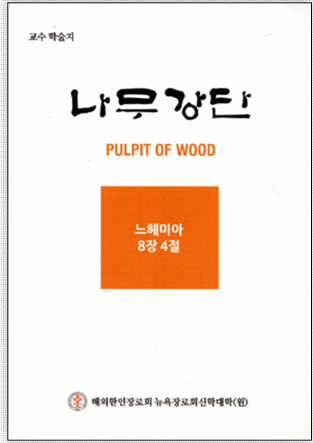
선순 목사의 연혁보고, 조성수 목사의 격려사, 엄순희 목사의 축사, 신경호 졸업생 대표의 답사, 임선순 목사의 광고, 교가제창, 전학장 김창길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3. 뉴욕장신대 교수학술지 발간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은 교수 학술지 ‘나무강단’ 출판 감사 예배를 2015년 11월 16일(월)에 드렸다.

‘나무 강단(Pulpit of Wood)’이란 책명의 교수학술지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말씀에 감사하며 각자 결단 서약으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느헤미야 8장 1~12절에서 이름을 따왔다.

학장 유재도 목사는 발간사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문제가 닥쳐오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조금이나마 해석과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자 ‘나무 강단’ 교수 학술지를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여러 교회와 다른 신학대학 및 일반 성도들과 나누고 교수들도 더욱 연구에 매진하며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세계 한인 교회에서 전해오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도움 요청에 응하며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의 신학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학술지 발행의 네가지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수 학술지 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학술지를 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룻기 1:15-18을 본문으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신학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학감 이기백 목사의 인도, 동문회장 김석충 목사의 기도, 재학생들의 찬양, 김종훈 목사의 설교와 기도, 학장 유재도 목사의 인사, 사무총장 장세일 목사의 축사,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의 광고, 이사장 박맹준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수 학술지에는 ‘문화변혁에 따른 예배변화와 갱신에 관한 신학적 연구(김세광)’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과 이민목회(김유태 교수)’ ‘목회단상을 위한 회년제도 고찰(김윤권 교수)’ ‘인간의 의지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소고(김희건 교수)’ ‘함께 전도는 신학적으로 타당한가?(민경수 교수)’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역할(백성철 교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소기범 교수)’ ‘이민 목회의 현재와 미래(양춘길 목사)’ ‘기독교교육의 새 방향(유재도 교수)’ ‘유학생 공동체를 위한 선교 전략(이기백 교수)’ ‘구원파를 통해 본 이단의 실체(임선순 교수)’ 등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역할 찾기를 주제로 영문으로 작성된 ‘In search of the Role of Nicodemus in the Forth Gospel(전광성 교수)’ 등이 실려 있다.

한편 1978년 설립된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은 학교 자체 건물 구입을 후원하기 위한 ‘뉴욕장신 후원회’를 지난 12일 발족하고, 후원과 기도를 호소했다.

나무강단 후원자 명단

(1) 땅끝교회(유재도 목사)	\$1,000	(2) 예인교회(정철 목사)	\$1,000
(3) 정규석 목사	\$300	(4) 참좋은교회(신상필 목사)	\$300
(5) 은혜와 평강교회(구정모 목사)	\$1,000	(6)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	\$1,000
(7) 찬양교회(허봉기 목사)	\$500	(8)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	\$500
(9) 포도원장로교회(임선순 목사)	\$500	(10) 뉴저지반석교회(이기백 목사)	\$500
(11) 예일교회(김종훈 목사)	\$1,000	(12) 은혜와사랑교회(소기범 목사)	\$500
(13) 뉴저지노회	\$500	(14) 예일교회(한기하 장로)	\$500
(15) 가스펠헬로쉽교회(성현경 목사)	\$1,000	(16) 민경수 목사	\$100
(17) 하나님의교회(정석진 목사)	\$500	(18) 정석진 목사	\$1,500
(19) 장세일 총무	\$200	(20) 필라안디옥교회(호성기 목사)	\$1,000
(21)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500	(22) 뉴저지하베스트교회(안민성 목사)	\$300
(23) 한국은행 이명숙	\$100	(24) 뉴저지순복음안디옥교회(이은혜 목사)	\$200
(25) 한인연합교회(허용구 목사)	\$500	(26) 한인연합교회(김진성 장로)	\$100
(27) 강영숙, 이보현, 이종순, 최경애 민혜주, 오춘자	\$440	(28) 김창길 목사	\$100
총 계		\$15,640	

4. 은혜와 평강교회 창립3주년 및 KPCA교단가입 감사예배



교인 뉴욕장신대 건축기금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2015년 7월에 본교 동문인 구정모 목사(31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에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10월 4일 창립3주년 및 KPCA교단가입의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구정모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방홍석 목사(회록서기)의 기도예 이어 벤전 5:1-4를 본문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임선순 목사(장신교수, 포도원교회)의 말씀이 이어졌다. 임선순 목사는 “성경공부로 시작된 은혜와 평강교회가 오늘에 이른 것은 기쁜 일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무리의 본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겸손으로 섬겨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성도들과 함께 자원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영광의 관을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모인 헌금은 전액 모두 목회자들의 출신학

5. 뉴욕한샘교회 35주년 기념 및 이경세 담임목사 취임예배

뉴욕한샘교회(담임 이경세 목사(31회))는 2015년 10월 25일(주일) 설립 35주년 기념 및 차풍언 목사 은퇴, 이경세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올렸다.

이경세 목사는 취임사에서 “설립 35주년을 맞은 이 때, 성전을 얻게 되어 더욱 뜻 깊다.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오직 복음만을 좇는 교회로 꾸려가며, 지역을 섬기겠다”고 비전을 밝히며, “차풍언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과 섬김이 오늘을 있게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날 설교를 맡은 임선순 목사(뉴욕포도원교회)는 베드로전서 5:1-4를 본문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기백 목사(뉴저지반석교회)는 ‘이경세 목사님 목회 단디 하이소’라는 한마디의 경사도 말로 의미를 함축하여 격려사를 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 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찬양을 통해 격려와 당부를 했다.

예배는 이경세 목사 사회, 김기환 장로 기도, 이상현, 안상균의 특별찬양, 임선순 목사 설교, 소프라노 이희정의 축가, 이근남 목사의 축사, 이기백 목사의 격려사, 이경세 목사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신상필 목사(뉴욕참좋은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교수
(교육신학)



학감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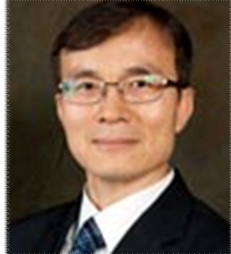
김경희 교수
(신약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종훈 교수
(실천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민경수 교수
(실천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송병기 교수
(실천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백성철 교수
(아비장 분교)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경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Th.M., M.Div.) 이화여자대학(M.A.) 서울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종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민경수 교수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D.Min., M.Div.) 서울대(M.A., 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송병기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연세대(B.Th.)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M.P.A),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백성철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M.Div.) 동국대(B.A.)

“뉴욕 장신 뉴스레터” 발행인 : 학장 유재도 / 편집장: 학감 이기백 / 편집차장 : 총무처장 임선순
* 뉴욕 장신 뉴스레터는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